

건설동향브리핑

제378호 (2012. 9. 17)

■ 경제 동향

- 주택 구매력, 작년 말 이후 소폭 개선

■ 정책 · 경영

-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 강화 필요
- 미래 건설시장 동력-에너지, 복지, 그리고 글로벌화

■ 정보 마당

- 건설투자 감소에 따른 일본의 건설 기술인력 동향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란** : 건설도 한 명의 인재가 수 백 명 먹여 살리는 시대 와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주택 구매력, 작년 말 이후 소폭 개선

- 최근 주택 가격 하락과 지속적인 금리 인하에 기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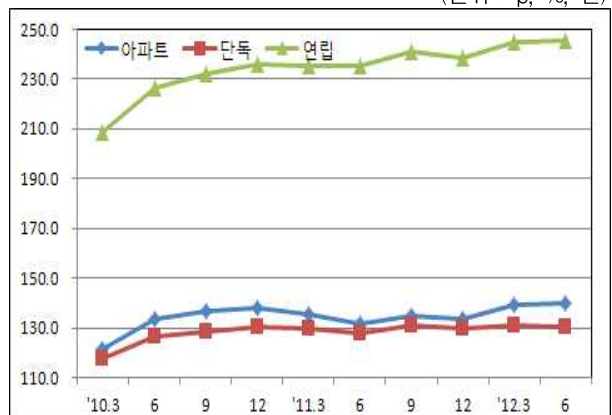
■ 주택구입능력지수 소폭 상승

- 2012년 2/4분기 전국 주택구매력지수(HAI : Housing Affordability Index)*는 전분기 대비 1.4p 상승한 144.4p로 조사돼 주택 구매가 조금 더 수월해진 것으로 나타남.
 - 주택구매력지수는 2011년 4/4분기에 139.2p를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 주택구매력지수 : 100 이상일 경우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중간 가격 정도의 주택을 큰 무리 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지수 값이 상승하면 주택 구매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통계 작성 이후 전국 주택구매력지수 값의 범위=125~145p).
-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와 연립은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여 구매가 조금 더 수월해진 반면, 단독은 소폭 하락하여 구매가 조금 더 어려워짐.
 - 아파트는 전분기 대비 0.8p 상승한 139.8p, 연립은 0.5p 상승한 245.1p를 보여 조사 이래(2008년 4/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단독은 0.3p 하락한 130.5p로 구매력이 감소함.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5.7p, 6개 광역시가 220.1p, 기타 지방은 269.6p를 기록하여 수도권에서는 주택 구입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주택구입능력지수 추이>

(단위 : p, %, 원)

	전국 주택구입능력지수	주택담보대출금리	중위 가구 월 소득
2010. 9	141.7	4.80	3,273,966
12	143.2	4.67	3,298,400
2011. 3	141.2	4.89	3,370,853
6	137.0	4.87	3,398,381
9	140.6	5.00	3,554,303
12	139.2	4.95	3,512,495
2012. 3	143.8	5.00	3,664,348
6	144.4	4.76	3,594,402



자료 : 국민은행.

* 주택구매력지수란 우리나라에서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중간 가격 정도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의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HAI=(중위 가구 소득÷대출 상환 가능 소득)×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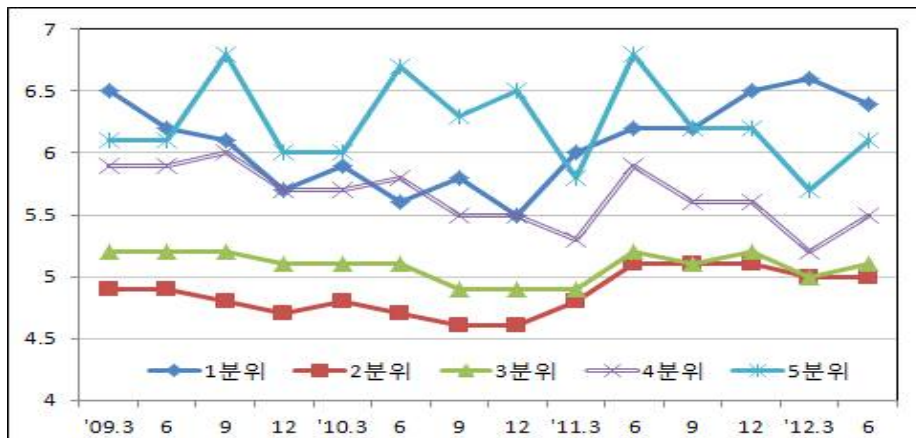
■ PIR 값 중 · 고소득층 상승

- 전분기 대비 2012년 2/4분기 PIR(Price to Income Ratio,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값이 고소득층은 상승한 반면 저소득층은 소폭 하락하여 고소득층에서 주택 구입이 다소 어려워진 반면, 저소득층은 주택 구입이 약간 수월해짐.
 - 1분위 PIR 값은 2012년 1/4분기 6.6배에서 2/4분기 6.4배로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함.
 - 2분위는 5.0배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반면,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2012년 1분기 5.7배 → 2012년 2/4분기 6.1배)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였으며, 3분위는 0.1배, 4분위는 0.3배가 상승함.

※ PIR 값은 각 분위 주택 가격을 각 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값임(예 : 1분위 PIR값 = 1분위 주택 가격 / 1분위 가구 소득).

<소득 분위별 PIR 값 추이>

(단위 : 배)



자료 : 국민은행

■ 주택 구매력 개선에도 주택 구매는 쉽지 않아

- 최근 주택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금리 인하로 주택 구매력은 개선되었으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의 감소, 고가의 내구재적인 주택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주택 구매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지난 9·10 대책의 주택 거래 비용 감소 및 가처분 소득 증가 방안은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 리스크 감소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유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엄근용(연구원 · kyeom@cerik.re.kr)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 강화 필요*

- 미래 트렌드 및 사회적 니즈에 부응하는 건설 활동 추구해야 -

■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지속 하락, 경제 성장 동력 확보해야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국내 경기의 침체로 금년도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있음.
 - 국내의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당초 3.2~3.5%에서 2.6~2.8% 수준으로 하향 조정
-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2000~07년의 4.4%에서 2031~50년에는 1%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
 - 잠재 성장률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재적 투자인 건설산업의 경제 성장 기여율이 지속적으로 축소 추세
 - * 건설업의 경제 성장 기여율 : 2003년 0.6% → 2009년 0.1% → 2011년 -0.3%
-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자정 노력과 함께 미래 트렌드와 사회적 니즈에 부응하는 건설 활동으로 경제와 사회 발전의 토대 마련 필요

■ 건설산업 관련 메가 트렌드

- 미래 메가 트렌드(Mega Trend) 하에서 건설산업은 매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4대 메가 트렌드 :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 기후 변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기술 간 융·복합화, 아시아의 역할 증대 등 세계 경제 글로벌화

■ 건설산업에 대한 사회적 니즈

- 건설산업의 사회적 니즈에 대한 일반 국민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응답자의 87.6%가 건설산업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식. 그 중 생활 관련(35.6%), 생산 기반(30.5%), 지역 경제 활성화(26.5%)에서 큰 영향을 끼쳤으며, 향후에는 환경 보호에 대한 역할 강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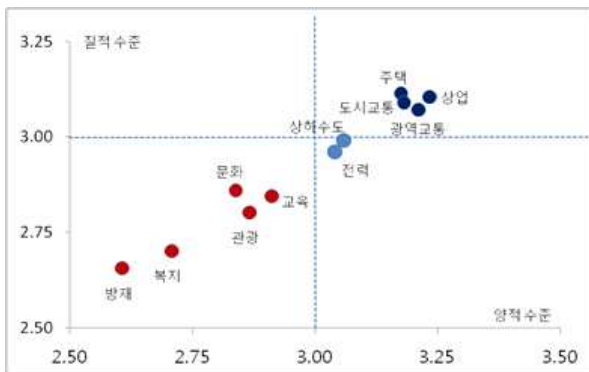
* 본고는 지난 9월 13일 개최된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션 세미나'의 제1주제 발표 내용으로 주제 내용의 전문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 수록되어 있음.

<메가 트렌드와 건설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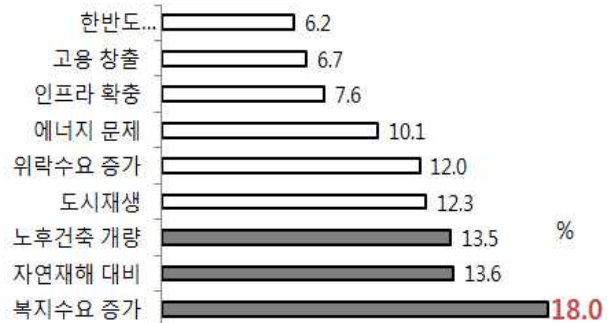


- 방재, 복지, 관광, 문화, 교육시설에 대한 양적·질적 만족도가 낮으며, 미래 변화 중 복지 수요 증가, 자연 재해 대비, 노후 건축물 개량 등에 대한 건설 분야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응답

<현 시설 수준 만족도>



<건설 분야에서 적극 대처해야 할 미래 변화>



- 건설산업의 사회적 니즈에 대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차기 정부의 주력 이슈 : ① 저출산/고령화 대비(복지 시설), ② 온실 가스 감축(에너지 시설), ③ 도시 인프라 개선, ④ 해외 건설 확대, ⑤ 노후화/경제 위축 극복(도시 재생 사업)
 - 중장기 핵심 이슈 : ①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 경쟁력 제고 ② 온실 가스 감축(에너지 시설) ③ 저출산/고령화 대비(복지 시설)

■ 미래 성장 동력 추진을 통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 필요

- 미래 중점 사업으로 ① 지역 정주 공간의 정비, ② 기후 변화 대비, ③ 도시 인프라 업그레이드, ④ 초국경적 국토 및 인프라 구축, ⑤ 해양 등 새로운 국토 공간 조성 등이 필요
- 미래 성장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업 및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고 공공 인프라의 투자 재원 확보가 필요

박용석(연구위원 · yspark@cerik.re.kr)

미래 건설시장 동력-에너지, 복지, 그리고 글로벌화*

- 환경 문제로 인한 도시 방재, 주거지 정비와 복지, 도시 경쟁력 제고가 신시장으로 부상 -

■ 미래 환경변화와 건설산업, 위기 요인보다 기회 요인이 더 많아

- 미래 사회의 메가 트렌드하에서 건설산업은 증장기적으로 상품, 시장 여건, 생산 방식 등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임.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요구도 복지, 에너지 등 생활과 직결된 부분으로 확대되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측됨.
- 미래 사회의 변화로부터 파생하는 건설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건설산업이 수행해야 할 미션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5개의 미션, 건설산업의 새로운 역할이 기대되는 신시장

- <미션 1>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 복지 사회를 위한 새로운 엔진
 -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제기되는 정주 공간의 문제(노후화, 양극화, 에너지 문제 등)와 주거 복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고 주택의 성능 향상과 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주거지 정비가 필요
 -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2020년 이후에는 약 50% 이상), 부동산 경기 의존적 사업 방식에서 탈피하고 소유주들의 고령화 등을 감안한 새로운 노후 공동주택 정비 방식인 뉴타운 3.0(지분총량제 및 추가 부담금 장기 납부, 다양한 관리 처분 방식의 적용 등)과 계층별·연령별 맞춤형 주거 공간을 모색하는 코하우징의 확산, 초등학교 등 지역 내 유휴 공공시설을 복합화해 지역 복지 시설로 활용, 국민 건강을 위한 농어촌 주택 석면 지붕의 조기 철거 등을 제안
- <미션 2> 스마트 라이프 라인 : 쾌적한 국민 생명선 만들기
 - 도시 인프라는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 수준을 높이고 성능과 관리상의 효율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의 속도 향상 및 연계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수도권외 도시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량·고속 교통 수단인 GTX(Great Train Express) 사업의 추진 및 기존 전철의 급행화·지하화를 통한 획기적인 통행 속도 제고 필요

* 본고는 지난 9월 13일 개최된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션 세미나'의 제1주제 발표 내용으로 주제 내용의 전문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 수록되어 있음.

- 기존 전철의 지하화는 교통 시설에 의한 지역 및 공간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수요가 높은 도시 오픈 스페이스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활용을 가능케 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양한 분야의 속도 전쟁은 건설 생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복잡한 도심 내 교통 시설 공사 기간의 단축, 스마트 센서를 이용한 인프라 이용·관리 효율의 극대화 등은 앞으로 더욱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미션 3> 글로벌 코리아 : 동북아를 세계의 중심으로
 -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세계 경제의 중심이 동북아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장기 발전 전략 필요
 - 국토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륙 연결 네트워크의 구축과 국내 산업 생산 시설의 첨단화·복합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첨단 제조업의 재유치 전략 필요
 - 아울러 통일 이후를 대비한 북한 지역의 각종 인프라 업그레이드 구상 필요
 - <미션 4> 굿 에너지 & 인프라 : 기후 변화 및 에너지 문제에 대응
 - 인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기후 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산업 차원에서 강구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다양한 에너지 공급 시설의 확충과 수요 관리를 위한 기존 건축물들의 에너지 효율화 개선 필요
 - 건설 시설물의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첨단 모듈 공법의 적용을 확산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 부문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해상 풍력 발전 단지 및 바이오 매스 플랜트, 그리고 자연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 인프라 보강의 필요성을 검토
 - <미션 5> 블루오션 : 차세대 성장 산업, 마린 라이프와의 만남
 - 해양의 중요성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생산·휴양·관광 등을 위해 유용한 해양 자원을 적극 이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및 국가 경제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
 - 여수 엑스포 시설의 사후 관리와 한류 열풍 등을 국내 관광 수요 증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서남해 지역에 다양한 주제의 테마 섬을 개발하고, 인근 대도시에는 이와 연계된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vents and Exhibition) 산업과 선박 수리 등 마린산업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 벨트를 조성하도록 함.

김현아(연구위원 · hakim@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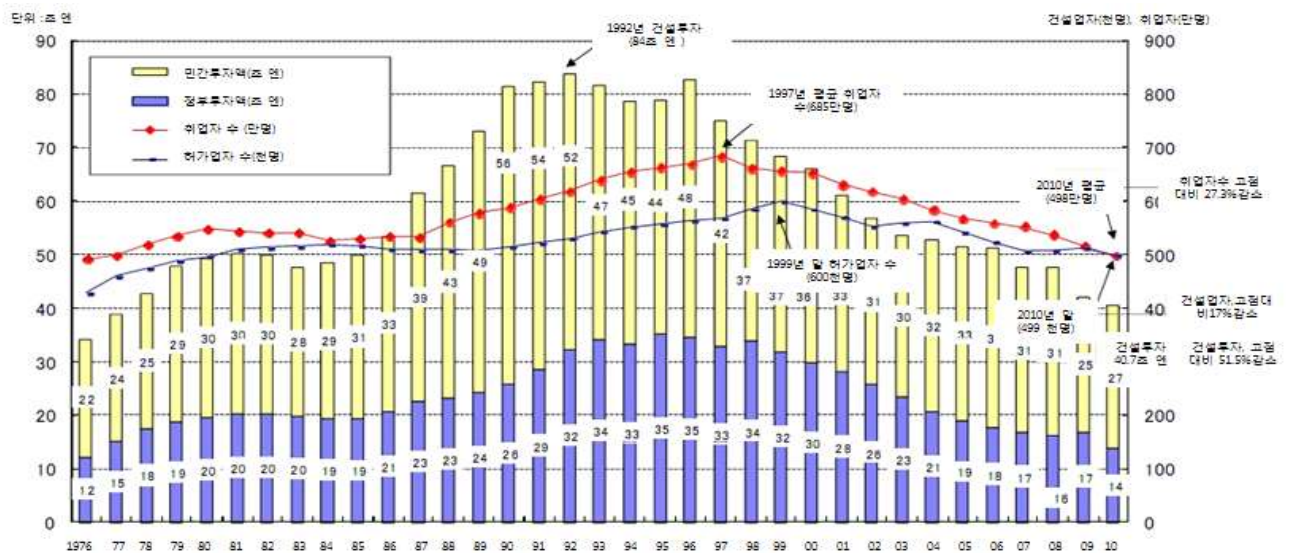
건설투자 감소에 따른 일본의 건설 기술인력 동향

- 일본 : 건설투자 감소세 전환 약 5년 후부터 기술인력 감소 현상 본격화 -

■ 건설투자 감소로 건설업체 및 취업자 수 지속적 감소

- 일본의 건설투자액은 1976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1992년 일본의 경제 버블 붕괴 이후 상승세를 마감하며 공공 및 민간투자 모두 감소세로 돌아섬.
 - 2010년 말 일본의 건설투자액은 약 42조 엔으로(정부 18조 엔, 민간 24조 엔), 1976년 이후 건설투자가 정점이었던 1992년의 84조 엔 대비 약 50% 감소
- 건설업체 수도 거품 붕괴에 따른 어려움 및 장기적인 저성장세에 따라 1999년 58만 6,000개사에서 2010년 49만 9,000개사로 11년 간 약 8만 7,000개사(약 15%)가 감소
- 건설투자액 및 건설업체 수의 감소는 건설업 취업자 수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침.
 - 1992년에 약 84조 엔으로 건설투자가 정점을 이룬 뒤 5년 후인 1997년에 건설업 취업자 수 또한 685만 명으로 피크를 이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498만 명으로 고점 대비 약 27%나 감소

<건설 투자 및 건설 허가 기업에 대한 취업자 수>



주 : 1) 일본 정부는 2011년 건설투자액을 약 42조 엔으로, 건설업 취업자 수를 497만명으로 추정하였음. 이는 2011년 발생한 일본 대지진 복구를 위한 일시적 증가 현상으로 예측됨.
 2) 투자액은 실적 기준, 허가업자 수는 각 연도 말(익년 3월 말)의 값, 취업자 수는 연평균
 자료 : 国土交通省 「建設投資見通し」・「許可業者數調べ」, 總務省 「勞動力調査」

■ 건설업 신규 취업자 감소 폭이 전체 취업자 감소 폭보다 커, 이공계 졸업생 취업난 당면

- 1997년 이후 건설업 신규 취업자 수의 감소 폭이 전체 취업자 수의 감소 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 신규 취업자 수는 2009년에 약 29천명으로, 1997년 피크 대비 약 59% 감소
 -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건설업 전체 취업자 수가 같은 기간 동안 약 22%(537만 명 → 688만 명)가 감소한 것에 비해 신규 취업자 수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더 큼.
 - 신규 취업자의 급격한 감소는 신규 인력의 채용보다 정년 연장이나 계약직 제도의 활용 등을 통해 인력을 수급하고자 하는 일본 기업의 인력 관리 방식과 관계가 있음.
 - 이러한 일본 건설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 기피 현상은 건설 기술 이전 인력 부족에 따른 기술의 단절과 능동적 업무 수행의 어려움 등을 초래하여 미래 일본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큼.

■ 기능인력 신규 취업률 단기간에 대폭 감소, 기술인력은 점진적 감소 추세

- 전문대학 이상 학력자 중 기술인력의 바탕이 되는 이공계 출신 입사자는 2002년 1만 1,258명에서 2009년 1만 642명으로 약 5.5% 감소한 반면, 기능 노동자를 구성하는 이공계 고교 출신의 입사자는 2002년 1만 2,009명에서 2009년 6,557명으로 약 45.3% 감소
 - 신규 취업 인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비중은 증가함.
 - 1992년에 전체 신규 취업자의 2%에 불과하던 대학원 졸업자의 비중은 2009년에는 8%까지 상승하였으며, 전문대학 이상 학력자 또한 같은 기간 42%에서 53%로 증가함.
 - 학력별 신규 취업자 수의 추이 변화는 고학력 기술인력이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기능인력에 비하여 직무의 변동 및 다른 산업으로의 직업 이동이 낮음을 의미

<학력별 건설업 신규 취업자 수 추이>

(단위 : 명)

연도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고등 전문학교	고등학교	계
1992	1,085 (2%)	26,830 (42%)	752 (1%)	34,371 (55%)	63,038 (100%)
1997	2,056 (3%)	32,956 (46%)	954 (1%)	35,330 (50%)	71,296 (100%)
2002	1,904(1,718) (5%)	16,576(9,540) (42%)	496 (1%)	20,717(12,009) (52%)	39,693(23,267) (100%)
2009	2,253(1,868) (8%)	15,366(8,774) (53%)	397 (1%)	11,036(6,557) (38%)	29,052(17,199) (100%)

자료 : 文部科學省 「學校基本調査」 / ()는 출신 학력 중에서 이공계 출신을 표시

임기수(부장 · kslim@cerik.re.kr)
김민형(연구위원 · mhkim@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및 세미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9. 10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 지식 포럼’에 주제 발표자로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발표 주제 : 저성장·고령화 시대의 주택 정책
9. 11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관련 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실장 참여 -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총괄반 회의 자문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최근 주택·부동산 시장 상황 및 진단 관련 자문
9. 12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WS 지표 점검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8월 주택·부동산의 주요 시장 지표 점검
	국회 이미경 의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정책 토론회의 토론자로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 - ‘건설 기능인 육성 및 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 참여
9. 14	법무부 상사법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물책임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실장 참여 - 부동산의 「제조물책임법」 범위 포함에 대한 자문

■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신사업 모델 제안」 세미나 개최

- 연구원은 오는 9.20(목),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신사업 모델 제안’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제1주제 : 건설과 조선의 융합 시나리오 구상
(발제자 :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관리연구실 연구위원)
- 제2주제 : (조선 관점) 조선과 건설의 융합 사례
(발제자 : 이종인 현대중공업 부장)
- 제3주제 : (건설 관점) 조선과 건설의 융합 사례
(발제자 : 이용섭 대우건설 상무이사)
- 문의 및 참조 : 기획팀(Tel. 02-3441-0701, 0896),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 자체 기획 교육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무 과정’ 개설

- 기간 및 장소 : 9월 18일(화)~20일(금), 건설회관 9층 연구원 연수실
- 교육 과정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 전략, 사업성 분석 및 재무 모델 실습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
- 문의 및 참조 : 교육팀(Tel. 02-3441-0691, 0671),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건설도 한 명의 인재가 수 백 명 먹여 살리는 시대 와야

수 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외사촌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졸업 시즌이 되면 국내 굴지의 S전자가 매년 인재를 찾아 미국 각지의 대학을 누비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 한 명의 인재가 수백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이 그 회사 회장의 신조라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20:80의 법칙(파레토의 법칙)을 잘 대변하는 것 같아 고개가 끄덕여졌다.

건설업도 전자만큼이나 인재가 중요하다. 아니, 어쩌면 전자보다도 더 인재가 중요한 산업이다. 단적으로 ‘건설 서비스’라는 단어가 건설이 ‘사람’에 의한 비즈니스임을 잘 말해준다. 더욱이 최근 건설업 경쟁력의 핵심이 점점 소프트한 부문으로 이동하고, 프로젝트가 대형화·다국적화·융합화되면서 당면 문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위기에 대처하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인재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건설업의 인력 중에서 이러한 역량을 지닌 인력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일례로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총 66만 여 명의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기술자 중에서 상기와 같은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고급 인력(특급 기술자)은 13만 9,0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학·경력자를 제외하면 기술사는 2만 4,900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이 통계는 자격증 위주의 등급제도에 따른 통계로 기술자들의 실질적인 역량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고급 기술자가 지금과 같이 업계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제대로 양성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나라 건설업의 경쟁력은 곧 바닥을 드러낼 것임이 자명하다. 해외건설 5,000억 달러 달성의 쾌거도 한낱 과거의 영광으로 끝나버릴 것이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역량을 지닌 인재의 육성을 생각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위한 분명한 경력 관리 경로와 비전을 제시하고, 자격증 위주의 기술자 관리체계를 역량을 중심으로 개편하여 기술자들의 실질적인 역량 제고를 유도하며, 계속교육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신기술과 신지식이 습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위기의 이 시간이 건설업의 또 다른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생각할 바로 그 시간인 것이다. <건설경제, 2012. 7. 4>

김민형(연구위원 · mhkim@cerik.re.kr)